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1.23.(화)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박화선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8인(안호림, 강건기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대표이사, 전무이사,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성기홍 대표이사

올해 시청자위원회 첫 회의이기도 하고 오늘 또 새로운 위원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좀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무튼 올해 위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한 일 정말 많이 생기시길 바라고 행복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박화선 위원님께서 또 새로 오셨는데 중소기업 중앙회를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먼저 경제를 살리는 관점에서 우리 연합뉴스TV 보도가 어떻게 잘 해야 될지 그런 좋은 소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합뉴스TV가 굉장히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며 잘 극복하고 차곡차곡 길을 가고 있고요. 또 올해도 사실 큰 일이 많습니다. 3월달에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3~4년 만에 한 번씩 있는 지상파든 종편이든 보도채널은 한 번씩 평가를 받는 일들인데 재승인 심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 분야가 격변입니다. 지금 미디어 플랫폼 자체가 워낙 다양화되고 있고 또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했던 CES, AI가 미디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게 굉장히 화제였다고 그러는데 AI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우리 미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분야에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저희 연합뉴스TV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저희 보도 채널 특히 저널리즘 분야에서 미디어 분야에서 국한시키는 저널리즘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희 연합뉴스TV의 보도 콘텐츠가 가지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 경쟁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뉴스TV가 만들어낸 보도, 사실보도가 신뢰성을 잃거나 또 그리고 여러 분야에 어떤 시각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국민의 공감대를 잃는 어떤 그런 보도를 해 나가게 된다면 아무리 기술적인 변화에 우리가 잘 대처한다 하더라도 우리 연합뉴스TV의 그런 영향력은 떨어지고 설자리가 굉장히 위축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시청자 위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게 또 시청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 연합뉴스TV가 생산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그런 신뢰성 다양성 그리고 그런 경쟁력들을 제대로 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견, 그 조언들을 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 한 해도 또 새로 오신 위원님을 비롯해가지고 기존에 계신 다 함께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반영해가지고 TV가 더 좋은 콘텐츠 만들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다시 한 번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1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하기전에 아까도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박수로 환영하면서 간단하게 인사 좀 하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 박화선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박화선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아직 회사 중앙회에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부서장이나 이런 경험은 많이 없어서 이런 자리가 제가 맡아도 되는 자리인지 되게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거 보고 듣고 저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방송에 도움될 수 있는 의견들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저부터 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프로그램에는 1) 화제의 인물이 출연하거나, 2) 현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나 관련자가 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 내용은 무척 방대하고 또 유익하다. 현장연결, 뉴스포커스, 뉴스1번지, 뉴스프라임, 한반도 브리핑 등의 출연 대담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한달간 시의적절하고 알찬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생각한다. 인터뷰나 대담을 성사시킨 제작진의 노고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화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노력한 흔적이 느껴진다.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쉬운 점은 출연, 인터뷰 동영상을 web에 올려놓을 뿐 인터뷰이(interviewee)나 대담자 발언에 대한 text service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text가 제공되는 것 같다. 대부분은 사회자나 앵커의 질문 Q-sheet만 나열하고 정작 알맹이인 text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Text 제공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다. AI 기술 발달로 audio를 text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텐데 왜 공들여 제작한 대담, 출연 text를 제공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24시간 뉴스채널인 연합뉴스TV를 실시간으로 본방사수하는 시청자도 많지만, 온라인 web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동영상을 빨리감기 기능으로 볼 수 있지만 불편하다. 출연 대담의 경우 text service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시청자에 대한 온당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Text는 역사의 기록이다. 이런 것들이 모여야 우리 사회 공론장을 책임지는 공영언론인 연합뉴스TV 위상이 더욱 탄탄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대담을 하루에 7~8번 정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텍스트 서비스 나가는 거는 한 건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요 인사가 대담을 한 경우에 한해서 텍스트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질문지만 올려놓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경쟁사인 YTN만 해도 모든 대담을 다 질문 대담 다 올려놓죠. 일부는 축약해서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다 올려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TV볼 때도 자막 누르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자동 자막이 그대로 내보내기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얘기하는지를 구별을 안 해주구요. 오류가 많아서 그냥 내보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텍스트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해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서면 제출)

- 자막 스크롤 방식 변경 고려, TV뉴스 보도에 있어서 자막은 시청자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소리를 끄고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자막은 내용을 알리기에 좋은 도구입니다. 연합뉴스TV의 자막 스크롤은 위에서 좌로 흘러서 나옵니다. 시청을 오래보다보면 눈이 아프고 워딩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YTN 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총선관련, 우리나라도 총선이 현재 80여일 정도도 안 남았지만 올해는 전 세계 국가의 절반정도가 중요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단순 정치뉴스 전달외에도 글로벌적 흐름도 짚어주는 특집이나 기획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 지구촌 선거의 해인 만큼 국내정치를 넘어서 전체 큰 흐름을 조망하는 기획편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부위원장이 지적하시기 전에 시청자들의 지적도 있었고 방통위의 지적도 있었고 해서 자막 스크롤 형식을 좀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양 옆이 좀 넓으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좌측에는 시계가 있고 또 우측에 있는 주가지수 등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가 짧은데 비해 요즘 스크롤은 많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흘러갈 때 스크롤 한 개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YTN이 하는 것처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보도 제작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하반기 중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 해인데 우리 총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선거가 전체적으로 많다는 것을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6일 뉴스 프리즘에서 세 꼭지 정도 다룬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내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기회를 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기업기상도] 제철 만나 맑은 기업 vs 역풍 맞아 흐린 기업, 한 주간 기업들의 희소식과 악재를 아주 쉽고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으로 내용이 알차고 좋았습니다. 한가지 옥에 티라면 기자님의 기사 전달 위치가 이슈에 따라 계속 좌우로 이동을 하다보니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업기상도라는 타이틀답게 기상뉴스 컨셉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주제가 경제뉴스다 보니 이동 동선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신선함과 정확한 경제뉴스 전달의 두마라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으실걸로 판단합니다.
- [경제] '운전석이 사무실로'...CES에서 공개된 미래차, 미국 CES 관련 소식으로 행사에서는 가전제품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도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앵커와 기자간 두 번의 연결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기 시간이 좀 길어 아쉬움이 있었고, 기아가 공개한 목적기반 차량을 설명할 때 기자의 어색함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들에서 선보인 새로운 모빌리티를 소개해 준 내용은 유익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기업기상도' 진행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희 나름 역동감 내지는 생동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였는데요.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씀하시면 집중도를 위해서 움직임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요즘 현장연결은 다 인터넷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특히 해외하고 연결할 때는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라서 쉽게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 연결시에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선 해당 기자가 신문에서 방송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된 저연차 기자이다보니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신석 위원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의 테마별 카테고리 분류가 시청자들이 영상을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체계적으로 잘 분류된 것 같다. 특히 CES 2024현장 카테고리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는 라스베이거스 소비자전자제품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 뉴스와 영상을 모아 놓아 전시회에 직접관람을 하지 않아도 현장감 있는 느낄 수 있게 하였다. CES 2024현장 영상들을 보면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과 미래에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영상을 모아 분류해 놓은 것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시청률을 높이는 구성이라 판단한다. 차후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전시회나 박람회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들을 별도카테고리 분류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 시켜 시청률을 높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 연합뉴스TV 사회뉴스의 2024. 1. 13 토요일드 방송 제목 : "'경량 칸막이 처음 알았어요'... '자율 훈련'으로 화재 대비' 방송은 요즘 고층아파트 단지 화재와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와 재난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려 주는 좋은 방송뉴스이었다고 판단한다. 요즘 겨울철로 난방을 위한 불과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노출 되어 있다. 또한 각종 지진과 재난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목격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히 재난 상황에 대한 교육과 대피방법, 대피소의 위치 등을 알려 주는 곳이 없어 재난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2024. 1. 13일자 "경량 칸막이 처음 알았어요"의 방송뉴스는 고층아파트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화재 및 재난에 불감증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훈련에 참여한 아파트 입주인 인터뷰에서 "우리 옆집에 통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였다. 나 역시 화재 대비 훈련 뉴스 보도를 하는데 "경량 칸막이 처음 알았어요."라는 제목을 보고 경량 칸막이를 화재예방 훈련에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지라는 생각을 했다. 아파트나 주변 대형시설물들은 화재나 재난에 대비한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에 대피시설 등이 설계가 되어 있고, 지하대피시설이나 공공대피장소 등이 다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시 사용을 해야 할 주민들은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정한 아파트 화재 점검의 날에 실시한 아파트 자율 훈련현장 방송뉴스에서의 화재시 대비요령과 장소위치, 소화 장비점검 등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안내해줘서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래픽으로 아파트내 안전대피장소와 경량칸막이 위치, 대치요령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해서 표현된 방송을 했으면 시청자들이 더 쉽게 인식이 되었을 것 같다. 연합뉴스TV가 공영방송 보도채널로서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또는 기획보도를 통해서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행동절차와 대피 안전장소 위치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카테고리 생성은 무한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현안 카테고리는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CES에 이어서 미국 대선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또 총선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시청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요즘 아파트 화재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 화재의 문제점이라든가 대피 방법 이런 걸 좀 자주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 보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요. 화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 대비 요령을 좀 알릴 수 있는 장기간의 캠페인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 제출)

- <지방소멸위기 대응...서울 근접 지역 등 쏠림 현상 우려 관련>, 1월 6일 뉴스 오늘 3부에서 '가평에 별장 사도 1주택 특례...일부 지방 쏠림 우려도'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 89곳에 집을 한 채를 더 사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관광업도 활성화한다는 뉴스입니다. 방문자 확대를 위해 기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던 관광단지의 기준을 5만에서 30만제곱미터로 낮춰 소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서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토지 수용에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 정책은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고 서울 근접지역 등 밀집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줄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뉴스는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별장을 사더라도 가치가 떨어지는 낙후지역에 수요가 생기긴 어렵고 결국 서울과 근접하거나 해양 관광지 일부 지역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우려를 적절히 지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기자는 정부의 주택기준 정책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 기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 이슈와 정부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향을 조목조목 잘 분석하고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 신년인사회 보도 관련 >, 1월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과기계정보통신계 신년인사회가 개최됐는데 연합뉴스TV에서 전혀 다루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요청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다양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부동산 특례, 관광업 활성화 정책 보도 등도 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이슈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다각도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출연해서 과학기술 진흥책을 잘 말씀하셨더라구요. 앞으로는 저희가 과기계와 정보통신계의 신년인사회도 보도되도록 챙기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현장의 재구성] 北 승계 암투 시작 ... 백두혈통의 딸들 잔혹사 2024 01 08, '김정은의 11살

딸 김주애가 사실상 북 4대 독재 권력을 이어받을 거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북 권력 승계를 놓고 백두혈통의 딸들인 김주애와 김여정,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부인 리설주 사이에 암투와 관련된 추측도 나오고 있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여 이 기사에서 분석과 추측에 대한 언급이 있겠다 싶은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그 뒤 얼굴 더듬는 딸, 엄마 앞에서 평평, 최고 존엄, 그 사이 사라진 최고 존엄 여동생 고모 등의 자막을 내보낸 뒤 바로 '북 승계 놓고 백두혈통의 딸들 암투 시작'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어서 '첫 등장부터 서프라이즈, 최고 존엄 아빠 얼굴 쓰담, 점점 군사 행사 참석 빈도가 늘어난다, 같은 의상 퍼포먼스, 누가 봐도 후계자, 이상화 작업도 시작, 김주애 호칭 격상 ing, 평양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석해서 고개 숙이고 평평 울고(연기?), 딸 세습 위한 연출 해석, 여성의 역할과 위대함 강조'라는 자막을 통해 김주애로의 권력 세습이라는 의미를 보여 주려고 합니다. 이후 독재자 이미지 세탁, 김주애 등장에 불편한 한 사람 김여정이 있는데, 김여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리설주와 김주애가 등장했다라고 하며 권력 승계를 놓고 운명이 엇갈렸다는 취지로 기사를 마칩니다. 현장의 재구성은 정확한 사실 보도보다는 바로 단정적 기사를 쓰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비추어 추정되는 행간의 의미를 다소 풍자적으로 보여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위 기사의 의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다소간의 추측은 가능하겠으나 전문가 등의 분석도 없이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휘 등을 사용하여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어 애초 현장의 재구성의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현장의 재구성 기사에서 평양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 우는 모습을 보여 주며 저출산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시 그 우는 모습을 보여 주며 딸 세습을 위한 연출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를 끄는 자극적인 화면을 다시 이용하여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호칭 격상 ing라는 표현은 한글과 영어를 접붙인 것 같은데,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에서는 몰라도, 공영방송에서 특히 자막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현장의 재구성'이라는 형식 자체가 일반 리포트나 단신에 비해서 딱딱함을 줄이고 재미를 주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뉴스에서 잘 안 쓰이는 영상을 활용해 보겠다는 취지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과 재미 사이에서 잘 균형을 못 잡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 뉴스들은 저희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카더라 정도의 풍문이 워낙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같은 경우는 더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추는 듯한 그리고 선불리 단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현장의 재구성'도 엄연히 보도 채널에서 만드는 뉴스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칭 격상 ing 이런 거는 아마도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닌가 싶어요. '현장의 재구성'도 일반 TV수상기에 나오는 콘텐츠와는 좀 달리 유튜브적인 속성도 감안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용한 것 같은데요. 디지털 콘텐츠의 성격을 가미하더라도 국적이 없는 이런 식의 표현은 공영 방송에서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화선 위원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주문을 사람이 안받으니'...노령층의 '당혹'시대[2024.1.13. 오후 10:01], 실생활에서 맞닥드리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노령층의 키오스크 서비스

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으며 점차 확대되어가는 디지털화된 서비스에 대한 노령층의 접근장벽을 심층취재하여 기획기사로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구성도 도입부에 노령층의 키오스크 주문 시현 및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키오스크를 편하게 다루는 세대들에게 자기 주위의 어른들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공감성을 끌어낸거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확대되어 점차 식당외에도 병원, 은행 등 키오스크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하는 장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령층의 디지털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단위에서 시행되는 키오스크활용에 대한 교육사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하며 나름대로의 해법도 제시한점도 훌륭한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기술의 발전이 인류를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소외를 낳는 디지털 약자를 살펴야한다는 멘트는 울림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향후 이러한 디지털격차는 노령화시대에 접어드는 한국사회에 점차 확대될 것이 보여, 추가적인 기획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국민이 쉽게 쓸 수 있는 키오스크의 표준화문제,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세 번째는 시군내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교육이 아닌 공중파 등을 활용한 교육방법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8.7조원 정책자금...8일부터 신청[2024.1.4. 오후6:13],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자금 지원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지원에 대한 체감도도 높습니다. 본 뉴스에서 정책자금 지원내용을 지원분야별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관심있게 시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은 8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합니다.'에 그쳤는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뉴스 내용을 조금 더 시청자 입장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사실 키오스크가 쉬운 건 쉬운데 어려운 것은 어렵더라고요. 저도 맥도날드 가서 한참 헤맨 적도 있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사실 중년층도 자칫하면 디지털에 뒤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피상적인 현상만 다루기보다는 키오스크의 표준화 문제라든가 또는 장애인 접근성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것이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획보도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지원 방법, 신청 방법을 놓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를 위하는 쪽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면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추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문장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고용브리핑 365 - 연말 최대 10일 휴가 (12/29), 이슈픽이라는 코너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종무식 대신 연말 장기 휴가를 즐기는 추세를 소개하고 있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온라인으로 열리거나 종무식을 하지 않은 곳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삼성·SK·LG 등 종무식·시무식을 하지 않고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신년 인사를 대신하거나 연말 장기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이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추세가 자

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조차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도 경영자의 인식 전환이 있다면 충분히 확산될 수 있는 것이기에 장기 휴가 장려 추세를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들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한국에도 일부 기업(220개)에서 '무제한 유급 휴가'가 도입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보수적인 기업문화로 인한 한계 이외에 법, 제도적 측면에서의 제약과 유의점도 함께 언급되었다면 보다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작년에 12월에 보니까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길게 휴가를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무식 즈음해서 그렇던데요. 저희도 이제 휴가 패턴이 서구화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기업들이 일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아직도 휴가를 보내는 데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또 일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대 흐름에 맞게 휴가를 좀 제대로 갈 수 있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지난 1월 3일 '선진국병 걸린 청년들... 극단선택·우울증 증가'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잘살게 돼도 우울하고 극단선택하는 청년이 늘어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10대 자해/자살 시도가 2018년보다 2022년에 70%나 늘었다는 등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의 수치들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마무리 했는데요 사회적 이슈를 다룬 의미있는 보도내용이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 같이 중요한 정보도 함께 안내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를 온라인에서 보면 보도내용 하단에도 표기를 하던데 실제 영상보도에서는 해당 내용을 노출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소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도내용 외에도 누군가에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등 연합뉴스tv 보도자료 하단에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저희가 자살 관련 보도에는 그런 안내 자막이 나갑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자살 통계에 기반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보내면서 깜박 놓쳤어요. 앞으로는 이런 통계 기사 작성할 때에도 안내 자막을 넣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 "짜릿한 겨울 손맛"...화천 산천어축제 '북적'(1.13.), 강원 화천군의 대표적인 지역행사인 '산천어축제가'가 1월 6일 개막해 28일까지 진행됩니다. 2003년부터 열린 이 행사는 매년 10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세계 최대 여행 매거진 '론리 플래닛'에 2011년 '겨

울철 7대 불가사의'로 소개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지역행사가 아니라 글로벌 페스티벌의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어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행사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이나 관광객 증가 등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천어축제는 인구 2만 3천명 남짓의 지방 소도시 화천에게는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매우 귀중한 행사다 보니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는 국민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산천어축제를 재미나게 소개했고, 지방소멸의 위기를 방지할 긍정적 분위기를 전하는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3일 뉴스에서 현장 캐스터는 2건의 뉴스에 걸쳐 심층 있는 내용의 리포트를 진행했고, 화천군수의 짙막한 인터뷰를 보도해 행사에 대한 특징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 낚시대를 흔들며 산천어를 잡는 남녀노소 강태공의 모습과 썰매를 타는 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주어 풍성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골프 치고 사진 찍고...화천 산천어축제 찾은 '리얼 산타'와 같은 산천어축제 관련 뉴스도 앞서 보도하면서 핀란드에서 온 산타와 엘프가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파크골프를 치며 재미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아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행사 참가에 대한 관심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시청자위원회 때 위원장님께서 지역 기사에 대해 단순히 스트레이트 위주 보도보다는 다채롭고 심층적인 보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뉴스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잘 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호평합니다. 연합뉴스TV는 공영의 성격을 지닌 언론매체인 만큼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갖가지 풍물을 지금처럼 잘 소개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연합뉴스TV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2024년 새해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추승호 보도본부장

보도채널 입장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에 관심을 갖고 많이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저희가 리포터를 지역 축제 현장에 보내서 생방송을 하고 있고요. 또 연합뉴스 지역 취재망과 결합해서 지역 프로그램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각종 지역의 풍물이라든가 행사 이런 거 많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뉴스17, 오후 5시 뉴스, 그 시간대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출연을 해서 각 지역에 대한 소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이 수도권과 함께 균형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방에서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세부적으로 미쳐 생각하기 어려운 것 까지도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거나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 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